



피해를 받아 고사한 가지

기획시리즈

3~4월의 해충(VI)

— 향나무하늘소(측백나무하늘소) —

변병호 / 임업연구원산림곤충과장

이 해충은 측백나무과의 쇠약한 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으로 향나무류의 조경수가 많이 식재됨으로써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잠재해충이다. 특히 도심지역에 있는 향나무류는 만성공해와 높은 빌딩에 의한 햇빛 차단등 부적당한 환경조건

으로 수세가 쇠약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 해충의 침해를 받은 나무가 도심의 신 조경지에 식재됨으로 해충의 밀도가 증가되고 번식에 적합한 기주식물이 늘어 남으로 이 해충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분포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가해수종 : 향나무, 연필향나무, 가이즈까 향나무, 노간주나무, 측백나무, 서양측백나무, 나한백나무, 편백나무.

가해상태 : 유충이 수피밀의 형성층을 갉아 먹어 수액의 이동을 차단하므로 나무가 고사한다. 수간에서의 가해모양을 보면

기주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충이 침입한 후 수간의 상하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줄기를 한바퀴 돌면서 수평으로 가해하는데 이 때에는 나무의 고사 속도가 빠르다. 이 해충의 피해는 나무가 죽기전에는 발견하기 곤란한데 그 이유는 벌레똥을 갱도에 쌓아 놓으며 가해하므로 수피 밖으로는 전혀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사된 부위의 수피를 벗겨보면 갱도가 있고 갱도내에 벌레똥이 꼭 차여 있다.

형태 : 성충의 체장은 15mm내외이고 체색은 흑색이며 모양은 납작하다. 머리와 가슴에는 긴털이 있고 날개는 담황색이며 중앙부와 끝에 흑색의 넓은 띠가 있고 기부에는 황갈색의 띠가 있다. 유충의 체장은 46mm 정도이고 체색은 유백색이며 머리와 경피판은 황갈색이다.

생활사 : 연 1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피해목의 용실(蛹室)에서 월동한다. 월동성충은 3~5월에 탈출공을 뚫고 밖으로 나와 즉시 교미하고 수피틈에 산란관을 넣어 1~5개씩 알을 낳는다. 알기간은 18일 내외이고 부화한 유충은 수피를 뚫고 들어가 형성층 부위를 불규칙하고 편평하



참나무
하늘소 성충

게 먹어 들어 가면서 구멍(掘道)에 벌레 똥을 채워놓는다.

한편 유충기간은 120일 내외이고 노숙유충이되면 심재부로 구멍을 파고 들어가 용실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시기는 7월상순부터 9월상순 사이이며 번데기 기간은 18일 내외이다. 용실에서 우화한 성충은 4~5개월간 월동한 다음 이듬해 봄에 탈출하여 산란한다.

방제법 : 쇠약목 이식목에 주로 산란하므로 수세가 쇠약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세가 쇠약할 때는 수간에 비닐을 감어 주거나 3월 중순부터 메프제 200배액을 줄기, 가지에 1주일 간격으로 3~4회 살포한다.

편백나무는 메프제에 약해가 있으므로 타 약제로 대체 살포해야 한다. ▲▲



유충의 가해흔적

수피내의 가해유충